

박당선인 “청문회 두려워 공직 걱정”

인사스타일 비판 고조 불구 고수 가능성

민주 ‘본말 전도… 밀실 검증서 벗어나야’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30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대화 도중 인사청문회가 화제에 오르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예수도 인사청문회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경찰·검찰에서 범죄인을 뒤져도 이런 식으로는 안 뛰진다”라고 놀라 던졌으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죄인 심문하듯 돌아볼

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박 당선인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은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후보자의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할지 허여 되어 생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려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

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언론에서 자신이 “밀실인사”를 한다고 지적하지만 두세명의 후보를 내놓으면 언론이 그들에 대해 ‘신상털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밸런스 부분은 의원들이 한 이야기이고 박 당선인은 ‘그래서 인재들이 공직을 마다할까봐 걱정이다’라고만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상황판단을 볼 때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는 하겠지만 극도의 보완을 유지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상을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정 확하게 추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밀실 검증’에서 벗어나 시스템 검증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인식이 몸시 우려스럽다”며 “부실 인사검증 책임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표명도 없이 안가에서 자당 의원들과 모여 청문회 탓, 남탓만 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핵실험 강행땐 훨씬 강력한 제재 검토”

李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軍 경계태세 한단계 상향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미·중·일 3국과 논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악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婉하여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

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회의를 열고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게 통상 절차였으나 이번에는 회의 일부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북한의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군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평시준비 3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2단계로 상황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종·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일정 브리핑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적인수위원회 공동기자 회견장에서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구 재정교부금 23%로 상향

광주시의회, 조례안 수정 의결

광주시의회가 31일 광주시와 갈등을 빚어온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가 요구한 교부율 22.8%를 23%로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수정 조례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자위는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 심의·조정 기능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가 요구한 22.8%, 5개 자치구와 공무원 노조 등이 요구한 25%,

광주발전연구원의 응집과 24.79%의 교부율을 가지고 수차례 포괄적 논의를 한 결과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부율 0.2%는 17억 원 규모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65% 수준인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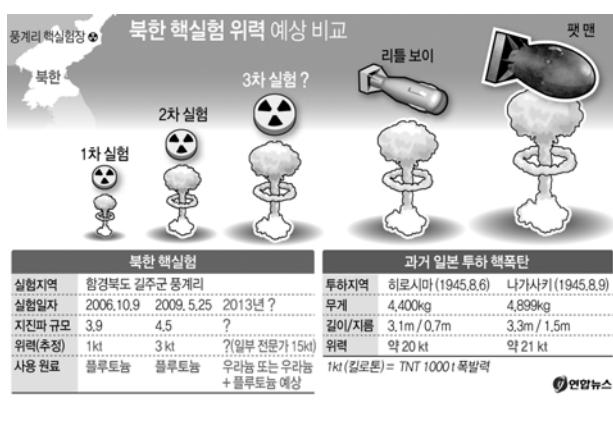
세 총액의 22.8%(2006억여원)로 교부율을 산정해 관련 조례안을 제출 했었다.

지난해까지 재원조정보조금 교부율이 취득세의 70%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시세였던 취득부동산 등록세(5%)와 도시계획세 등이 자치구로 이관된다 때문이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행자위 일부 의원들이 교부율 25%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1차례 보류 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날 조례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김정기3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 무인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1850㎡
1146㎡ 김정기11억 최저가1억5천

단독 주택

△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김정기1천만 최저가6천만

△ 광산구 지평동 1층농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김정기2천6백만 최저가1천8백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 2층공장 토지5289㎡ 건물 3587㎡ 김정기26억 최저가18억

△ 광신구 도전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 996㎡ 김정기15억3천 최저가12억2천만

△ 광성구 동화면 2층공장 주택1933㎡ 건물2320㎡
김정기7억 최저가3억9천만

△ 나주시 공신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김정기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토지 매매

△ 장성군 삼시면 관리지역 전.일아 36996㎡
김정기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납로 대지 80 건평 300 감정 17억선 5층은 공실 선세 1억2천 월550만원 매도 11억
- 요양병원적합 호수군 도곡온천지역 대지 1712건평 1681 대출 10억 매도 18억
- 광주역 앞 4천선 도로 5층 건물 대지 100 건평 370 대출 5억4천 원 5층은 광성 전세 0천 월 450 매도 79억원
- 환평군 월여면 요양시설·정신병원 적합 대지 3369 건물 1116㎡ 대출 3억 매도 6억9천원
- 양동 월포근린 신축건물 대지 132 건평 195 감정은 119억상위 입대임대를 대출 4억 5천 매도 79억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부근 상업지 210평 건물은 2층구조 15층 광시가 11억7천 매도 129억
- 서방지상 4거리 상업지 356평 건물 867 층층해서 병원, 요양시설 적합 공사가 23억4천 매도 19억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당금상대 대지 275 주택 52평 양4500
- 광주역 앞 중흥동 대지 108 건평 397 원룸6 투룸17㎡ 양4천 원 8천에 100만원 토지7

• 화순군 도곡면 대지 100평 건평 412평 대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매도 10억

• 화순군 도곡면 주택 대지 433 건평 158평 양53천

• 통영 면적 104㎡ 대지 147평 건평 150㎡

• 통영 면적 104㎡ 대지 147평 건평 150㎡